

작품 내용

제 목	이름을 적는 일
내 용	어머니가 남긴 공책은 냉장고 옆 작은 서랍에 있었다. 오래된 영수증, 고무줄, 쓰다 만 볼펜 사이에서 누렇게 변한 공책 한 권이 나왔다. 표지에는 아무 제목도 없었다. 다만 안쪽 첫 장에 어머니의 이름 석 자가 작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공책이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공책에는 반찬 만드는 법, 장보는 목록, 동네 사람에게 빌려준 그릇의 개수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글씨는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또박또박했고, 어떤 날은 급하게 달려가듯 기울어 있었다. 특히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 적힌 페이지에는 고춧가루 자국이 번져 있었다. “마지막에 파 조금.” 그 짧은 문장 옆에는 별표가 두 개나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별표를 보며 웃다가, 이상하게도 목이 메었다.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여러 번 실패하고 고친 흔적이 거기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인터넷에서 낯익은 문장을 보았다. 어느 게시판에 “엄마표 김치찌개 황금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었다. 사진은 없었지만 문장은 거의 같았다. “마지막에 파 조금.” 별표만 빠져 있었다. 댓글에는 “잘 쓸게요”, “퍼갑니다”, “출처가 어디죠?”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다. 작성자는 “예전에 받은 자료예요. 마음껏 쓰세요”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의 공책 한 페이지가 낯선 사람들의 화면 속에서 아무 이름 없이 떠돌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했다. 레시피 하나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좋은 것은 나누면 좋은 일이 아닌가. 나 역시 학교 과제를 하거나 글을 쓸 때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고, 문장을 참고하고, 자료를 내려받은 적이 많았다. 무료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무료인 줄 알았고, 출처가 없으면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 편리함은 늘 빠르게 도착했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문장이 이름 없이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 창작물은 화면 위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줄의 글 뒤에는 누군가의 잠 못 든 밤이 있고, 몇 번의 실패가 있고, 다시 고쳐 쓰는 손이 있다. 그림 한 장 뒤에는 지운 선들이 있고, 노래 한 곡 뒤에는 수없이 반복한 숨이 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글을 만들고 그림을 닮게 그리지만, 아무리 빠른 기술도 처음 마음이 생겨난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창작은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과 이름까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어렵고 딱딱한 법으로만 생각했다. 무언가를 막

고, 금지하고, 돈을 요구하는 장치처럼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공책을 떠올리며 생각이 바뀌었다. 저작권은 잠그는 자물쇠가 아니라 이름을 지켜 주는 작은 문패에 가깝다.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는 일, 쓰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일, 빌렸다면 빌렸다고 밝히는 일. 그것은 법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지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예의다.

나는 그 게시물에 조심스럽게 댓글을 남겼다. “이 문장은 제 어머니가 오래 전 공책에 적어 두신 레시피와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출처를 확인해 주시고, 이름 없이 퍼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댓글을 쓰는 데에는 오래 걸렸다. 누군가는 유난스럽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복사 버튼보다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좋은 것을 나누는 일과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일은 다르다는 것도 배웠다.

이제 나는 자료를 사용할 때마다 잠시 멈춘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어떤 시간을 지나왔을까.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어디까지 가 닿기를 바랐을까. 그 질문을 떠올리면 손가락이 조금 느려진다. 대신 마음은 조금 더 정확해진다.

어머니의 공책은 아직 냉장고 옆 서랍에 있다. 나는 첫 장에 적힌 이름을 다시 바라본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 주는 일은, 사라진 사람도 함부로 사라지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지 모른다. 오늘 내가 가져온 문장 옆에 주인의 이름을 적는 일, 허락을 구하는 일, 누군가의 시간을 내 것처럼 쓰지 않는 일. 그 작은 존중이 모여 창작자가 다시 쓰고, 그리고, 노래할 힘이 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사용할 때마다 먼저 묻고 싶다. 이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 그 물음에서부터 더 나은 공유가 시작된다고 믿는다.